

# 韓國傳統化粧風俗史에 관한 研究

世宗大學院 家政學科·衣裳學專攻  
金 恩 珠

## 目 次

I. 序 論	2. 傳統化粧 方法
II. 化粧의 歷史	III. 結 論
1. 化粧品の 種類	參考文獻

## I. 序 論

化粧은 아름다운 부분을 과시하고, 추한 부분이 나 약점을 감추거나 수정하는 작업이며, 화장품은 그러한 작업에 쓰이는 물품이다. 다시 말하면化粧은 假飾·假化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化粧, 化粧品」이라는 단어는 日本人들의 造語이며 開化期 이후에 「新式化粧品」이 들어오면서 따라 들어와 併合 이후 보편화되었다. 韓國의 고유날말로서는 흔히 粧飾·粧容이라 하였다. 이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날말이며, 粧飾을 세분하여 淡粧·盛粧 혹은 濃粧이라 하였고, 香粧·艶粧이라고도 하였다. 여기에 소요되는 물품은 粧飾品이라 하였고, 장식품이 끌고루 갖추어졌을 때 粧염이라 표현하였다. 참고로 「大韓和事田」<sup>1)</sup>에서 살펴 본 「化粧」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었다.

※ 〈化粧〉; 大漢和事典<sup>1)</sup>

① 〈粧飾〉	분을 바르고 수식, 즉 꾸민다는 뜻이다. (晉書, 石季龍載記): 술에 빠지고 색에 음란해져서 교만하고 방자하며 道가 없고, 宮人의 아름답고 깨끗한 者를 장식하는 반면에, 정직한 者의 머리를 베고 파를 씻어서 그릇 위에다 올려두었다.
② 〈淡粧〉	우아하고 얇은 화장 (梅妃傳): 여자 妃 가운데 글 잘하는 者가 스스로 물러가는 여자를 위하여, 그 모습이 얇은 화장과 우아한 옷을 입어서 자태가 밝고 빼어났기에 그림으로도 묘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였다. (楊萬里, 梅花詩): 달 아래 비치는 파도가 안개를 만들고 안개는 서리를 이루어, 고향 생각하는 마음에 의지하여 얇은 화장을 하였다. (吳景奎, 白海棠詩): 얇은 화장을 하고 홀로 동풍(東風) 속에서 서서, 산에 가득한 옛날의 지조없이 자색이 뛰어난 美人들을 냉소했다.
③ 〈濃粧〉	짙은 화장, 두터운 화장 (張說, 絳花圖詩): 어떤 여자가 수풀 사이에서 진한 天馬를 탄 남자에게 교태를 부리고, 꽃 속에서 진한 화장을 하여 남자의 마음을 끌도록 하였다. (白居易, 新樂府, 監商婦): 소금 장사 부인의 모습이 배부르게 먹고 진하게 화장하여 梅樓에 의지하여 양뺨을 붉게 물들여서 꽃이 피고자 하는 듯하다. (耶律楚材, 臘梅詩): 희고 맑고 얇은 화장칠을 한 것을 도리어 비웃고, 혐의를 미워하여 붉고 진한 색깔로 진한 화장을 하였다.

1) 諸橋徹次 著, 大漢和事典, 東京, 大修館書店, 昭和 59(1984)

① 「粧飾」よそほひ飾る。飾。粧飾。(晉書, 石季龍載記) 荒酒淫色, 驕恣無道, 云云, 粧飾 宮人美淑者, 斬首洗血, 置於盤上。  
② 「淡粧」うすげしやう。あつさりしたよそほひ。(梅妃傳) 妃善屬文, 自比謝女, 淡粧雅服, 而姿態明秀, 不可描畫。  
(楊萬里, 梅花詩) 月波成霧霧成霜, 借與南枝作淡粧。(吳景奎, 白海棠詩) 淡粧獨立東風裏, 冷笑漫山舊桃李  
③ 「濃粧」こつてりしたよそほひ。色のこいよそほひ。厚化粧。濃粧。(張說, 絳花圖詩) 林間艶色驕天馬 花裏濃粧件麗人。  
(白居易, 新樂府, 監商婦) 餉食濃粧倚梅樓, 兩朶紅顏花欲綻。(耶律楚材, 臘梅詩) 反笑素英渾淡抹, 卻嫌紅豔盞太濃粧。

연구범위는 부족국가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이며, 얼굴 화장 방법을 문헌 및 벽화, 현존하는 화장도구 등의 유물을 중심으로 한국인들이 언제부터, 어떤 화장품으로 어떻게 아름다움을 가꾸었을까? 이러한 의문에 檀君神話가 실마리를 던져준다. 檀君神話에 美意識이 서려있으며, 古代 한국인이 이미 4~5천년前, 化粧에 대한 관심이 깊었다는 기록<sup>2)</sup>과 더불어 定型化된 한국인의 原始化粧이란 文身이 아닐까 한다.<sup>3)</sup> 文身은 장식수단인 동시에 신분과 계급표시 수단으로서 小國家의 우두머리가 제사장의 專有物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장식수단인 바에야 한국인의 定型化된 原始化粧이란 文身이라고 생각한다. 韓人들은 金銀이나 비단보다 구슬을 가장 귀하게 여겨 옷에 달기도 하고 머리카락에 매달아 장식하였다.<sup>4)</sup> 즉, 馬韓·弁辰人들은 文身과 구슬로 치장했으며, 여러가지 무늬를 다양한 색상으로 文身하여 아름다움을 가꾸기위해 온갖 정성을 쏟았다 한다. 이러한 화장의 목적과 더불어 우리 한국 조상들의 화장품원료는 온통(植物性)이었다. 분(粉)은 달밤에만 피는 분꽃 가루를—연지는 장독대 곁에 숨겨 기르는 잇꽃(紅花) 잎으로—눈썹은 보리깡부기 털어서 칠하고, 매니큐어는 봉선화였다. 그리하여 韓國化粧風俗史는 美意識史로서, 한국인이 살아온 흔적을 生活史 측면에서 조명을 시도해 본 것이다. 本研究에 있어서의 제한점은 현존하는 유물이 없었으므로 문헌 中心이 되었다.

## II. 化粧의 歷史

「檀君元年 나라 사람들에게 머리(髮)에 蓋首하는 법을 가르쳤다.<sup>5)</sup>」라는 기록과 더불어 화장의 역사는 우선 수발(修髮)의 역사와 때를 같이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인간이 농경(農耕)을 터득함에 따라 공동부락제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런데 고대

인들의 집단가무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종의 주술적(呪術的) 의식이었으므로, 화장의 기원을 종교에 두는 경우도 흔히 있다. 이렇게 시작된 화장은 의식이 한창 다양해지고 또 그것이 단순한 주술적 행사라기보다 하나의 민속제전 내지는 사교행사로 변화됨에 따라 보다 개인적인 성격으로 발전하고 아무래도 여성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의 체제를 완전히 갖춘 삼국시대에 이르러서는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중국의 발달된 화장풍속이 가세되어 본격적인 화장 문화가 형성되기 이르렀다고 생각된다.<sup>6)</sup> 우리의 화장 역사를 보면 삼국 중 고구려는 중국과 가장 인접해 있었던 만큼 중국과의 교류가 잦아 신라나 백제보다 훨씬 화장 문화를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다. 특히 중국에서 일찍부터 유행하였던 연지는 이웃 나라에 전파할 정도로 풍속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의 화장 역사를 담은 구하사(久下司)의 「化粧(化粧)」에 “연지가 일본에 들어온 것은 추고천황(推古天皇) 18년(610) 9월로, 고구려의 스님 담징이 그 종자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기록에서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 ① 부족국가시대

삼국시대 이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의식의 필요성에서 치장했었으며 피부의 부드러움을 위해 돼지기름(豚油)을 발랐다. 반지·팔찌·구슬 등의 장신구로 아름다움이 돋보이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원시 화장(일본의 경우, 赤·土粉飾) 단계를 벗어나 진보한 화장기술이 엿보이는데 낙랑유물인 채화칠협의 그림에 머리카락이 정돈되어 있으며 눈썹화장을 하고 있다. 눈썹은 굵고 진하며 둥글게 그렸고 이마가 넓다. 뿐만 아니라 춤과 노래를 즐겼다는 여러 문헌으로도 추측할 수 있다. 또 당시 독약 제조 기술의 존재로 미루어 화장품 제조의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으며 거울도 만들었다.(1971년 8월 전남 화순에서 발견된 細文鏡은 기원전

2) 檀君神話〈三國遺事卷一〉

3) 全完吉, 「옛 5000년」, 敎文社, 1980年

4) 晉書 四夷傳 韓條

5) 增補文獻備考 卷七十九 禮考二十六章服一, 李肯翊著「燃藜室記述別集」卷十九參照

6) 趙孝順, 「韓國服飾風俗史研究」, 1988, p.374~375

7) 久下司, 化粧, 日本法政大學出版局, 1970, p.245

趙孝順, 「韓國服飾風俗史研究」, 1988, p.375(재인용)

7C경 제조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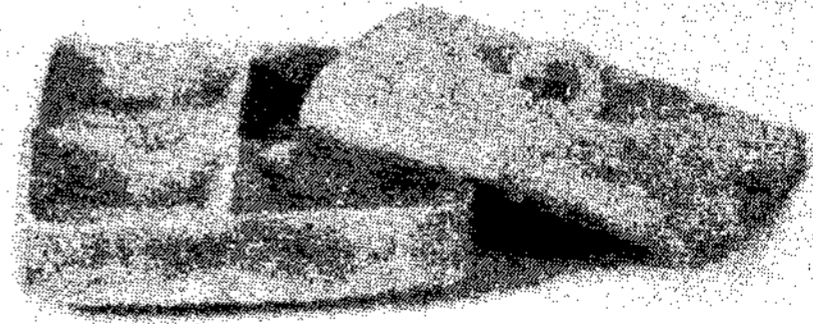
② 고신라·통일신라시대(B.C 57~A.D 935)

화장술과 화장품 제조 기술이 비교적 발달하였다. 고구려, 신라, 백제 3국이 연지, 백분, 머릿기름을 사용했으며, 여러가지 장신구로 멋을 냈고 화장품 제조기술을 일본과 중국에 전파시키기도 했다. 신라의 스님이 서기 692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연분(鉛粉)을 만들어주고 상을 받았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신라의 화장품 제조 기술이 앞섰음을 알 수 있다. 7세기경에 본격적으로 中國文物을 수입하여 의상과 화장이 국제화되었으며, 9세기경에는 지나치게 사치하여 계급별 服色을 王命으로 정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신라여인들이 눈썹화장을 하지 않았다는 「新唐書」의 기록은 신라초기의 화장풍속이었으며, 옅고 은은한 화장풍조를 표현한 것으로서, “김유신의 누이동생 文姬가 김춘추와 인연을 맺을 때, 옅은 화장을 하고 있었다”한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향낭을 패용하였으며, 채색 비단으로 장식했고 수유·동백·아주까리 기름으로 머리를 가꾸었다. 잇꽃(紅花)으로 연지를 만들고 산단(山丹)은 색분(色粉)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신라는 영육일치사상(靈肉一致思想)으로 화랑(花郎)도 귀걸이·반지·팔찌·목걸이를 장식하였다. 또한 신라 부녀의 화장풍속은 “분대(粉黛)하지 않고 미발(美髮)을 머리에 두르고 주채(珠綵)로써 장식하였다.”<sup>8)</sup>고 했다. 여기서 ‘분대(粉黛)’란 얼굴에 바르는 분과 눈썹 그리는 먹물을 뜻하는 것으로, 당시의 화장을 대변해 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만큼 화장 풍속이 크게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인 문무왕 6년(666)에 “부녀의 모든 복장을 당(唐)의 것과 동일하게 하라”<sup>9)</sup>는 고지가 내려진 것으로 미루어, 당시 당나라에서 유행하던 분대 화장이 이때에 이르러서 신라에서도 크게 일반화되었으리라고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통일신라 이후에는 화장이 일반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장품의 질이 또한 향상되었다. 곧 통일신라 이전에 사용되었던 백분(白粉)의 원료는 주로 쌀가루여서 부착력이 없는 데다 날비린내가 나서

화장품으로서의 결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통일신라 이후에는 백분의 이같은 결점이 보완된 연분(鉛粉)을 만들어 사용하였으니, 이것의 원료는 납이었다. 이로부터 광물질의 화장품이 세력을 갖기에 이르러 활석(滑石), 백토(白土), 황토(黃土)도 분의 재료가 되었다. 한편 개화기에는 분꽃씨를 가루내서 분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통일신라에서는 백분에 붉은 색을 염색한 색분(色粉)을 만들어 쓰기도 했다. 색분의 색소는 “백합꽃의 붉은 꽃술 가루를 모은 것인데, 이것을 누에고치집에 묻혀 불에 발랐다”<sup>10)</sup>고 한다. 따라서 통일신라에서는 고구려시대부터 내려오던 연지와 색분이 함께 불연지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화장 용구(유병, 분합 등)〈圖 1, 圖 2〉의 제조도 있었다.



〈圖 1〉 토기유병(土器油瓶)  
화장용 기름을 담았던 병  
(신라, 태평양박물관)



〈圖 2〉 토기화장합(土器化粧合)  
화장품을 담았던 것으로 보이는 토기합  
(5~6세기, 신라, 태평양박물관)

8) 新唐書, 卷二十, 列傳, 第一四五, 「不粉黛率美髮以縹以珠綵飾之」趙孝順, 앞의 책, p.376(재이용)

9) 三國史記, 卷六, 新羅本記, 第六, 文武王條, 趙孝順, 앞의 책, p.376(재이용)

10) 全完吉, 化粧風俗史, 月刊藥局, 1982, p.164

③ 고구려·백제시대(B.C 37~668)

ㄱ. 고구려

고구려는 추고천황(推古天皇) 18년(610) 9월에 스님 담징이 일본에 연지의 종자를 전래했다는 기록과 더불어 서기 5~6世紀傾의 고분으로 추정되는 修山理 벽화(圖 3)에서 주인공인 귀부인의 머리는 冠을 썼고 뺨을 연지로 단장한 모습이 있다. 쌍영총 벽화의 여인도 연지로 화장하고 있다. 더우기 修山理 벽화의 주인공은 귀부인이고, 雙楹塚 벽화(圖 4)의 女宮 혹은 侍女로 추정되는 사람이 연지로 치장하고 있으니, 당시 上下流 여인들이 모두 화장을 했었다고 추리된다. 눈섭화장에도 꽤 신경을 써서 짧고 붕툭하게 그렸으며, 머리는 들어서 엮고 있다.



〈圖 3〉 修山理 벽화

〈圖 4〉 雙楹塚 벽화

ㄴ. 백제

중국 문헌인 「隋書」에 “백제 여인들의 화장풍속은 분대(粉黛)하지 않고, 머리를 변발(變髮)하여 뒤에 늘어뜨린다”<sup>11)</sup>고 했으며, 신라때와 마찬가지로 고구려만큼 화장풍속이 크게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

④ 고려시대(918~1392)

통일신라의 뒤를 이은 고려는 전대(前代)의 발달된 화장술을 그대로 이어 받은 데다, 국초(國初)부터 중국의 기녀(妓女)제도를 본받아 교방(教坊)을 두는 등 기녀를 제도화시킴으로써 한층 화려한 화장 문화를 이루었다. 기녀와 화장과의 관계는 기녀의 직무가 아름다운 자태로 남성들을 즐겁게

하는 것인만큼, 자연 얼굴 단장에 많은 신경을 쓴다는 데 있다. 당시 기녀의 기본 화장은 백분을 바르고 눈썹을 그리는 분대였으며, 일반 여성 또한 이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런데 「고려시절요」 「신우 8년조」에 따르면, 바로 앞시대까지 크게 유행했던 연지바르는 풍속이 고려에 이르러 거의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곧 “부인들이 몸치장에 있어 얼굴에 바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분만 바르고 연지를 쓰지 않으며 버들잎 같은 눈썹을 그렸다”고 했다. 이처럼 연지바르는 풍속이 퇴색된 대신 방향(芳香) 풍속이 크게 유행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의 귀부인들이 요대(腰帶)에 채조(采條)로 금탁(金鐸)을 달고 금향낭을 찻는데 이것이 많을수록 귀히 여겼다”고 한 「서화봉사고려도경」의 기록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밖에도 고려 여성들의 화장은 오늘날 알려져 있는 각종 화장 도구 즉, 작은 합(盞)과 유병(油瓶)이 세트되어 있는 화장합이 대표저인 例로 화장술과 화장품의 발달이 이런 도구에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圖 5, 圖 6〉 머리장식은 宋史의 기록에 의하면, 「부인은



〈圖 5〉 청자향합(靑瓷香·)  
(고려, 태평양박물관)



〈圖 6〉 향유병(香油瓶)  
화장용 향수를 담았던 당초분 청자(고려, 높이6, 태평양박물관)

11) 隋書, 卷八十一, 列傳, 第四十六, 「婦人不可粉黛辦髮垂後」

살짝 머리를 왼쪽 어깨에 내려 드리우고, 나머지 머리는 아래로 내려 땁기로 묶고 비녀를 꽂았다」고 한다. 在家人을 위하여 마련한 出家法人戒齊에 「塗飾香髮 歌舞觀聽」「不著瓔珞 不香塗身 不香香薰衣」 등의 條項이 있다. 기록된 바로는 백분을 애용하였고, 화장색조는 옅고 은은했으며, 新羅女人들이 色粉을 사용했다<sup>12)</sup>한다. 신라인과 고구려인들이 연지를 사용했으나, 고려인들도 연지를 사용하지 않았을리가 없다고 추측한다. 눈썹은 버드나무가지 처럼 가늘게 굽은 모양으로 아름답게 그렸고, 향을 애용하였다.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 향을 뿌리며 여러가지 화장품을 발랐다던지, 호화로운 보석장식(著華瓔珞)을 했다는 귀절로 미루어보아 고려 여인들이 매우 사치스러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말엽 내지는 조선초기의 작품이라고 추측되어지는 시조<sup>13)</sup>를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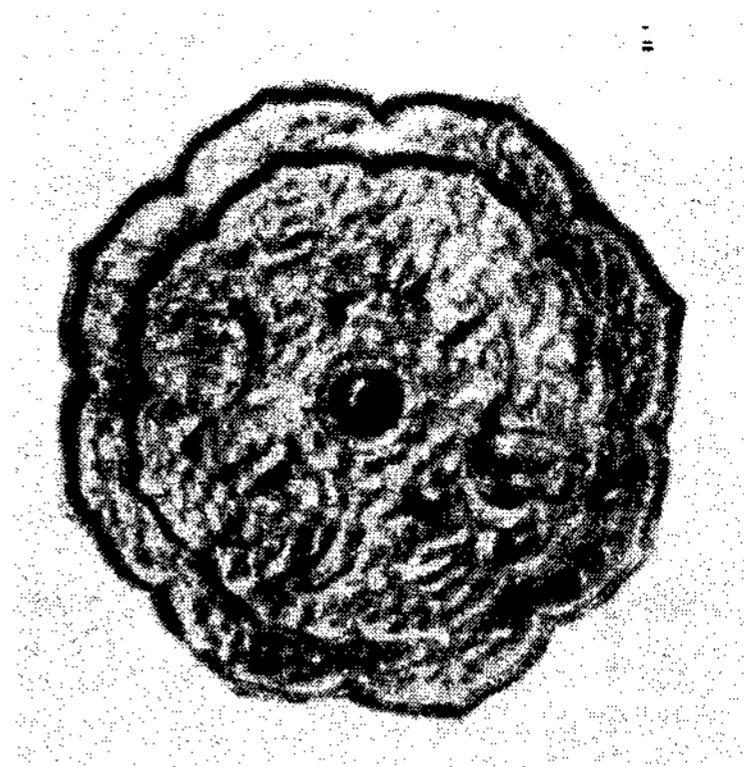
「백발에 화냥노는 년이 젊은 서방하려 하고, 센 머리에 黑漆하고, 태상준령으로 허위허위 넘어가다가

과그른 소나기에 흰 동정 검어지고 검던 머리가 희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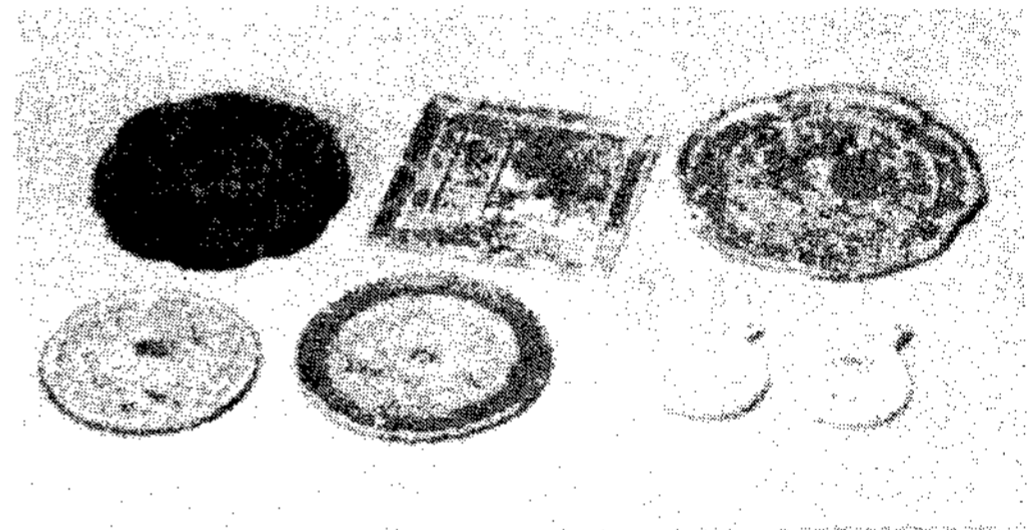
그르사 늙은이 소망이라 일락배락하노매」에서 여인들이 머리 염색을 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조정에서는 빗제조 및 거울<圖 7, 圖 8> 제조 기술을 보급시켰으며, 기생들 중심으로 분대(粉黛) 화장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교방(教坊)에서 가르친 탓이다.

⑤ 조선시대(1392~1910)~근대

조선시대는 내외(內外) 사상의 팽배로 자유연애, 외출 등이 금지된 데다가 여건의 위축으로 외모보다 내면의 아름다움 즉 부덕(婦德)이 강조되어 여성의 화장이 전시대 보다 성행하지 못했다. 또 기생 증식으로 미인 박명 사상의 지배로 특수계층에 한정되고 결혼·외출의 의식 행위로 개념이 바뀌어 갔다. 조선시대의 화장에 관한 最古의 기록은 선조(1567~1608) 때의 것으로, 임진왜란 직후 일본에서 발매된(朝の露)라는 화장수 광고 문안 중 「조선의 最新制法으로 제조한……」이라는 귀절로 미루어 한국의 화장품 제조 기술을 모방하였음



<圖 7> 동경(銅鏡)  
팔화형(八花型) 구리 거울  
(13세기, 고려, 지름10.5, 태평양박물관)



<圖 8> 석경(石鏡), 은경(殷鏡), 동경(銅鏡)  
(신라~고려, 태평양박물관)

이 분명하므로, 일본인들도 조선인들보다 사치스러웠음을 알 수 있다. 숙종(1674~1720) 시대에는 화장품 행상인, 매분구(賣粉媼)가 있었으며, 의인(濟人)소설 여용국전(女容國傳)에 많은 화장품이 등장하고 있어 조선시대의 화장품 제조 기술이나 화장술의 규모를 추측할 수 있다. 조선말기 대한제국 시대에는 화장품 제조산업이 수공업적인 자기 생산에 그치고, 상업에 대한 경멸 특히 화장품 행상에 대해 천대와 빈부계급의식의 확대로 서민층이 화장품 사용 기회를 잃고, 나아가서는 화장품 상업의 발전을 저해시켜 고종의 비, 민비(閔妃)도 외제 화장품을 사용하였다. 이 밖에 500년간 짙은 화장이 천박한 행위로 인식되어 위축의 또 다른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한다. 조선시대 일반 부녀자들이 이처럼 자의반 타의반으로 화장에 많은 제약을

12) 고려시대 出家法 八戒齊  
13) 김천택, 靑丘永言收載(시조), 영조, 18C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때에 이르러 화장이 그들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당시의 부녀자들은 평상시의 기초 화장에 주력하여 얼굴을 부드럽고 윤기있게 하는 면지방(面脂法), 주름살 방지 등 보다 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화장술을 터득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화장의 초점은 물에 갠 분이 얼마나 곱게 피부에 스며들었나 하는 것이었던만큼, 분합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물에 갠 분을 얼굴에 바를 때는 누에고치로 만든 분첩을 사용했다. 당시 분첩 만드는 풍속을 이규숙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누에고치 있잖우, 누에고치 썬요, 고치썬 풀숨이로 그게 약품이 아니구 그걸 속에다 숨을 놓고는 그걸 자꾸 가죽에다 식워요, 시방 왜 얼굴에다 바르는 분첩마냥 그렇게 만들어요. 분을 발르고는 그걸로 두드리지”<sup>14)</sup> 이 때 누에고치로 만든 분첩은 그 크기를 좀 작게 해서 양볼에 연지를 바를 때 사용하기도 했다.

입술 연지 바르는 방법으로, 위·아래 입술 전체에다 바르지 않고, 입술 끝에만 빨갛게 찍어 멀리서 보면 흡사 구슬을 머금고 있는 것 같다는 표현이 있다.<sup>15)</sup> 또한 화장의 범위가 앞시대와 같이 얼굴에만 국한되지 않고 손에까지 화장되어 소뿔에 빨간 물을 들여 아름답게 장식하기도 했다고 한다.

## 1. 化粧品의 種類<sup>1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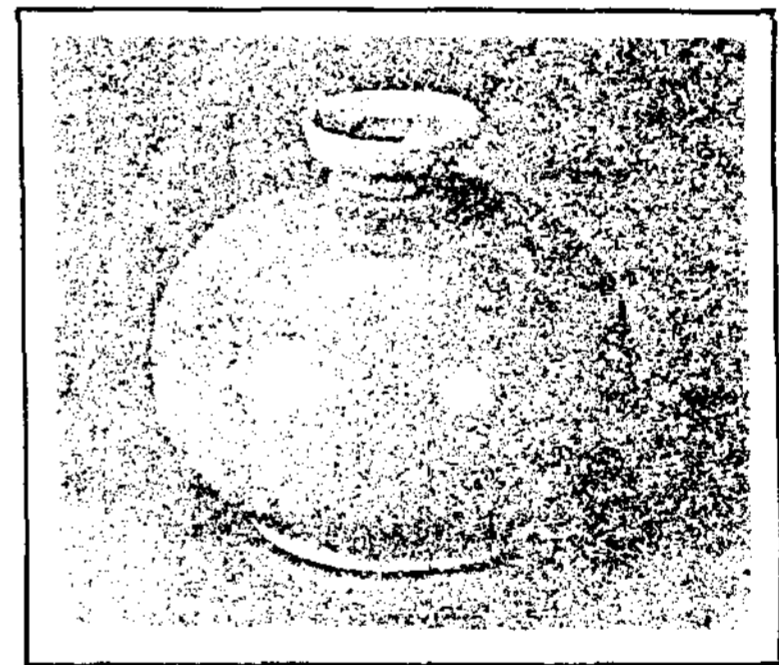
### ① 기름(各種油)

식물 및 동물의 여러가지 기름이 옛부터 화장품 또는 화장품의 원료로 널리 사용되었다. 수유, 동백, 아주까리 기름은 그 자체가 신라시대부터 머리 기름(頭髮油)이었으며, 참깨, 살구씨, 목화씨, 쌀, 보리의 기름은 여러가지 화장품 원료의 용해 및 제조에 이용했다. 예를 들어 연지·미묵(眉墨)은 기름에 재어 사용했으며, 전신, 얼굴 마사지용 기름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옛부터 검고 윤기나는 머리결 가꾸기에 주력했으므로, 대부분이 머리 기름이었다. 돼지기름은 유럽에서도 몇십년전까지 피부를軟化시키는 크림의 원료로 이용되었다. 이들 기름

은 햇빛이나 온도 변화에 민감하였기 때문에 삼국시대(up to the 7th century, A.D)부터 토기 및 도자기 기름병의 제조가 촉진되었다. 유병의 형태에 따라 기름의 종류가 달랐을 것이다.<圖 9, 圖 10>



<圖 9> 토기유병(土器油瓶)  
(신라, 태평양박물관)



<圖 10> 청자유병(靑瓷油瓶)  
(고려, 태평양박물관)

### ② 향(香料)

향의 발달과정은 애초에는 종교행사에서 불교가 소개되면서 대중화되어 비롯되었고, 인간의 비화보다 의학용으로 사용되었었다. 남자들의 愛香관습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이다. 신라시대부터 우리나라 남자들이 향낭을 패용했는데, 고려때도 그러하였다. 五角香이라고도 불리우는 잣을 옛날 선비들

14) 이규숙, 이 '계동마님'이 먹은 여든 살, 뿌리깊은 나무, 1984, p.91

15) 李圭景, 五州衍文長箋散橋, 1788~

16) ①~⑤ 全完吉, 化粧風俗史, 月刊 藥局, 1982~

이 이런 향을 좋아했었던 것 같다. 또 향료제조는 양반집 부녀자의 중요한 일거리였으며, 그 제조법<sup>17)</sup>에 있어서 무릇 향을 和合함에 그 질거나 되기를 알맞게 하기가 힘들다. 향을 고루 섞어 그릇에 봉하여 집안 땅을 세치 혹은 너댓치 파고 묻어서 한달 지닌 뒤에 끄내면 그 향내가 기이하다. 또 분(白粉), 비누(澡瓦)의 날비린내를 가리기 위해서도 향료의 보급이 촉진되었다. 신라시대 여인들이 향낭(香囊)을 사용하였으나, 당시의 향료는 가루(粉末)·덩어리(丸藻)였고, 민간에서 사용하는 향료는 향기질은 꽃잎·줄기를 건조시켜 만들었다. 예를 들면 난조·매화과의 꽃잎을 기름에 재어 즙(花汁)을 짚어 발랐다. 이 밖에 동물·광물에서도 추출하였으며, 사향은 그 중 널리 애용된 향료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향을 신성하게 여겼으며, 서약할때나 독서할때 상용(常用)하는 등 화장에만 사용하지 않았기에 일찍부터 중국이나 일본 내지는 페르시아, 동남아시아와도 교역하는 중요품의 하나로서, 옛 한국인의 문화수준과 감각이 발달했음을 증거한다.〈圖 11, 圖 12〉

### ③ 연지(燕脂)

최표(崔豹; 중국晋나라 때 사람)의 「古今注」에, 「연지(燕支)의 잎은 삼주(薊)와 같고 꽃은 창포와 비슷한데, 서쪽 지방에서 생산된다. 그 지방 사람은 물들이는 것을 연지라 하고, 중국 사람은 이 연지 이름을 홍람(紅藍)이라 하면서 부인의 얼굴에 바르는 염분(染粉)을 만드는데, 분 이름을 연지분(燕支粉)이라고 한다.<sup>18)</sup> 신라시대부터 홍람화(紅藍花)의 화즙(花汁)으로 만들기도 하고, 광물인 주사(朱砂)로 만들기도 했는데 그 꽃이 연국(燕國)에서 나는 것이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한다. 4~5세기 경 고구려에서 주사로 연지를 만든 기술은 연금술의 일부로 중국에서 모방해 가기도 했다. 연지의 원료인 홍화의 가루는 1만여평에서 고작 70~80Kg 정도 생산되어 값이 매우 비싸다. 연지는 열 불에 짚는 것이고, 곤지는 이마에 짚는 연지이지만 애초에는 다른 색을 사용했는지도 알 수 없다. 특히 연지의 붉은색(朱色)은 잡귀(雜鬼)가 꺼리므로, 연지가 귀신의 접근을 예방한다 하여 주술적인



〈圖 11〉 청자향합(靑瓷香 · )  
흑백상감청자(12세기, 고려)  
(지름8.5, 높이3, 태평양박물관)



〈圖 12〉 금사향낭(金絲香囊)  
(조선, 태평양박물관)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 조선시대에는 인습적으로 준용되었고, 소녀들도 이마와 입술 뺨에 널리 애용하였다. 그런 연지, 곤지를 짚음으로서 어떤 사람에게 예속된다는 복중 관념에 물들게 되었다. 이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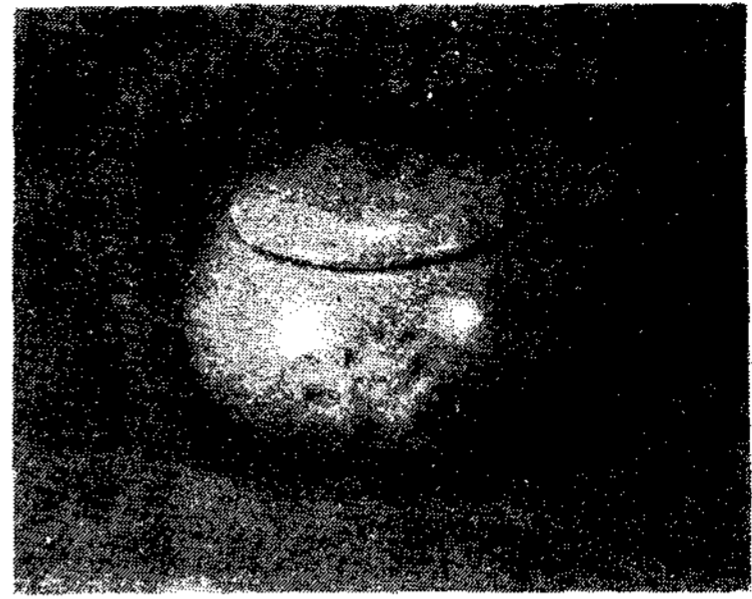
17) 憑虛閣李氏, 閨閣叢書(1759年~1824年)

18) 李漢, 星湖僊說(英祖年間, 1730年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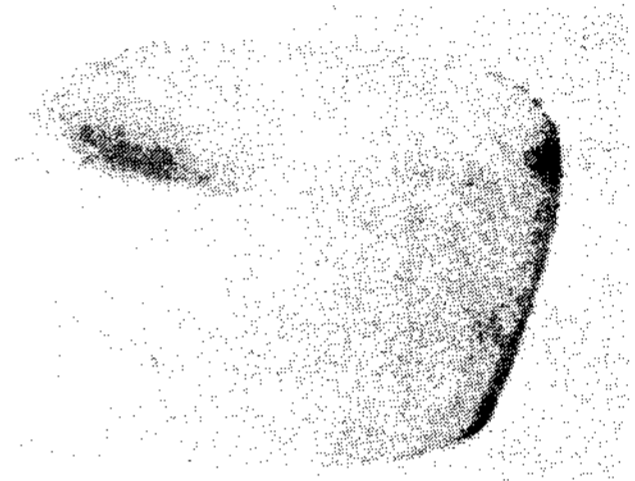
이(齒)를 검게 물들이는 풍속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를 검게 물들이는 방법은 무쇠를 초(醎)에 담구어 수개월 넣어 놓으면 갈색의 액이 된다. 이것을 솥그릇에 넣어 끓여 오배자(五倍子)가루와 더불어 이에 바른다는 것이다.<sup>19)</sup> 또한 불과 입술 및 손톱이 붉어야 한다는 삼홍(三紅)은 기원전부터 동서고금에 따라 달라지지 않은 미녀의 조건이었다. 이미 기원전 1200년의 이집트 벽화에서 입술에 칠을 하는 아가씨 모습이 나온다. 그리스 아테네 여인들도 입술에 연지칠을 했던 기록이 있었고, 중국의 은(殷)나라 폭군의 애비(愛妃) 달기(妲己)가 연지산(燕支山)에서 나는 잇꽃(紅花)으로 연지 곤지 칠을 하고 있다. 그 미(美)의 원산지인 연지산을 빼앗기는 것은 부녀자의 안색(顏色)을 빼앗기는 일이라 하여 역대 전재의 불씨가 됐을 만큼 요지가 되었다. 이미 낙랑고분벽화에 연지칠을 한 여인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연지 역사도 유구하다. 일본에 이 연지를 전래한 분이 고구려 스님 담징이었다는 것만으로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다. 오뉴월에 피는 잇꽃(紅花)으로 화즙(花汁)을 내어 굳히면 고약처럼 되는데, 이를 홍떡(紅餅)이라 했고, 이를 가루내어 잿물로 홍색소를 분리시켜 썼다. 이는 「홍떡 한 가래면 기방미색(妓房美色) 한죽은 산다」는 속담이 있을만큼 기생들이 반기는 귀물이었던 것이다. 입술이 파리하면 아들 못낳을 무자상(無子相)으로 평가받았기에 이 연지곤지는 한국전통사회에서 여자의 생존 조건이기도 했다<sup>20)</sup>고 傳한다. 이처럼 양볼에 동그렇게 찍었던 연지는 중국 당나라 18대 희종(僖宗), 19대 소종(昭宗)에 이르러 입술에도 마르기 시작했고, 이러한 당의 입술연지 풍속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통일신라 시대 때이며, 고려에 이르러서는 잠시 중단되는 듯 하더니 조선조에 와서 다시 크게 부활되었다. <圖 13, 圖 14>

#### ④ 백분(粉白粉)

B.C 2200년경 즉, 약 4천년전 중국(夏)에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으니<sup>21)</sup> 분의 역사는 약 4천년 되건만 약 2년 전까지는 가장 대표적인 하장품이었던



<圖 13> 청자연지합(靑瓷■脂·)  
(고려, 지름5.5, 높이3.5, 태평양박물관)



<圖 14> 연지 개는 그릇  
(조선, 태평양박물관)

백분이 화운데이션, 콤팩트로 변신하고 자취를 감추다시피 하였다. 분(粉)은 글자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쌀(米)의 가루(分)이다 여기에 2/3가량의 서속을 배합하여 곱게 빻은 것이거니와, 분꽃 씨앗을 곱게 빻아 채로 쳐 사용하기도 했다. 또 조개껍질을 태워 가루(胡粉)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으며, 고령토·백토(白土)·황토(黃土)·적토(赤土) 등 희고 고운 흙을 사용한 적도 있고, 활석가루를 백분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한국인들이 오랜 옛부터 흰피부를 숭앙한 까닭에 남자들도 백분을 애용했었다. 그런데 남자들은 백분을 얼굴에 직접 바르지 않고 분세수를 했다.<판소리 춘향전>을 보면, 이도령이 분세수를 곱게 하여 희디 흰 피부였다고 한다. 분세수란 백분을 물에 풀어 세수하거나 걸죽하게 얼굴에 발랐다가 물세수로 씻어내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백분은 두가지 결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화장사위의 여인처럼 바르기 까다로운 점이고, 또 하나는 곡식을 원료로 한 백분은

19) 김동욱, 박물관 신문, 1984.3.1, 韓國服飾史 辨證—없어진 服飾간의 古俗—

20) 李圭泰(조선일보, 1989.5.17)

21) 盧思慎外, 新增東國輿地勝覽(中宗二十五年, 1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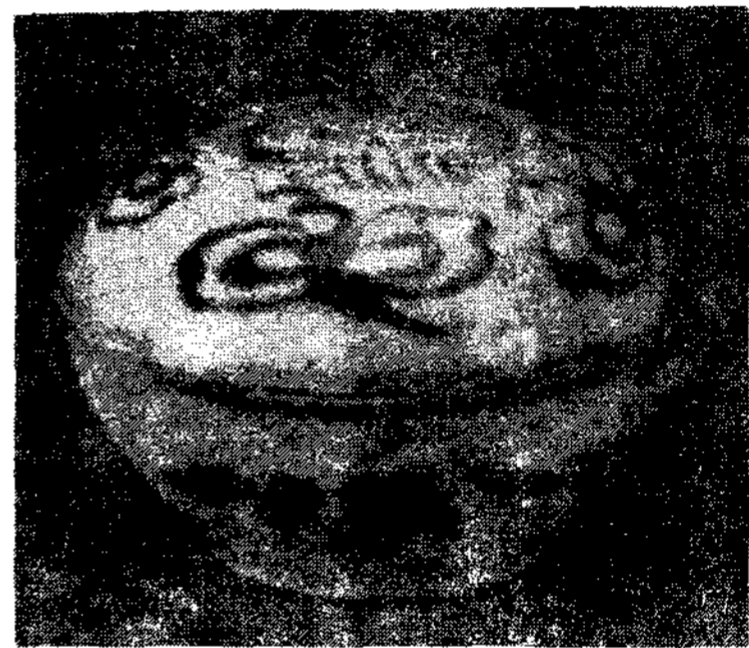


날비린내가 나는 점이였다. 이와 같은 두가지 결점을 해소시킨 백분이 나왔으며, 그것이 바로 납분(鉛粉)이다. 신라의 스님이 서기 692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연분(鉛粉)을 만들어주고 상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7세기 이전에 연분을 제조하였다고 믿어진다. 그런데 이처럼 납성분이 함유된 분은 부착력이 뛰어난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납독을 유발했다. 이른바 화장품에 의한 부작용, 즉 화장독을 일으킨 것이다. 납독이 오르면 살갓이 푸르스름해지며 땅구멍이 커진다. 심하면 얼굴이 썩고 미치광이가 되는 일도 있으며 태아에까지 영향을 미쳐 병신을 낳는 경우도 있다 한다. 납성분이 함유된 분은 만들기가 까다롭거니와 이처럼 부작용이 컸기에 아마도 화장사위에서처럼 번거롭게 백분화장을 하지 않았나 추측된다. 당시 1922~23年代의 백분화장법으로 다음과 같은 상세한 미용기사를 살필 수 있다. 「오늘날 모범적 화장법으로 이 방면의 대가에게 공인된 것은 먼저 살이 거치러지지 아니하는 가데이 비누와 살갓을 더욱 곱게하는 구라부 세분(活粉)으로 얼굴을 잘 씻고, 제일 신호하게 살갓 거치러지는 것과 해에 거는 것을 막는데 겸용하는 백분 바침, 구라부 미신(美身) 구리므를 얼굴로부터 목에까지 손끝으로 문질러 바르고 더운 양수건으로 약간 씻은 후에 신시대의 이상적 백분인 구라부 백분을 손바닥에 쏟아서 손끝으로 잘 개어서 바르고 모란 세모(刷毛)로 분을 잘 퍼지게 하고 수세모로 다시 펴고, 저진 수건으로 눌러서 분을 잠재이고 얼굴을 고음고 불그레하게 도화색을 내이는 구라부 불연지를 눈아래로부터 뺨 근처에 살짝 바르고, 구라부 백분을 세무 초(草)에 무쳐서 얼굴에 약간 뿌려두면 고상하고 어염분 화장이 얼른 잘 됩니다.<sup>22)</sup>〈圖 15, 圖 16, 圖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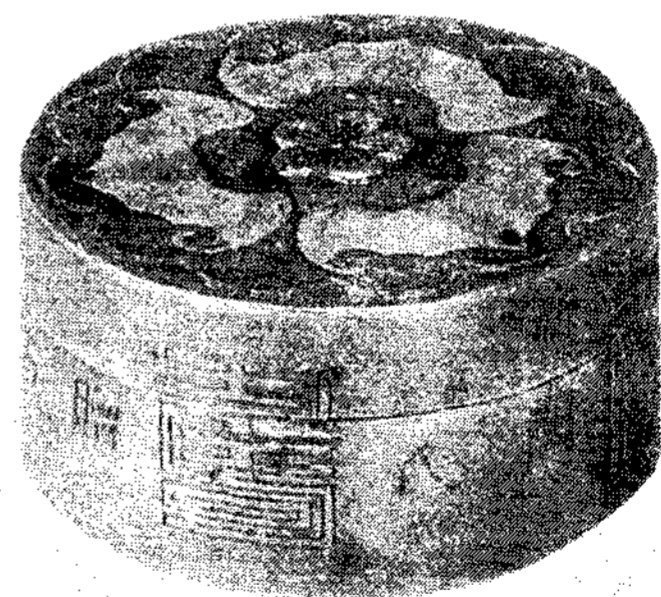
1920年代에 선풍적인 인기를 집중시켰던 박가분(朴家朴; 국산 화장품 제조 허가 1호)도 연분이였다. 옛날의 분은 어느 것이나 부착력이 약한 데다가 덩어리(固形)여서, 명주실로 솜털을 민 뒤 물에 개어 바르고 20~30분 가량 자야만 했다. 우리나라 화장품 사상 가장 뚜렷하게 기록된 여러가지 의미를 지닌 화장품이었던 이 박가분은 박씨가 제조·



〈圖 15〉 토기분합(土器粉 ·)  
(신라, 태평양박물관)



〈圖 16〉 청화백자분합(靑華白磁粉 ·)  
(조선, 지름5.5, 높이3.5, 태평양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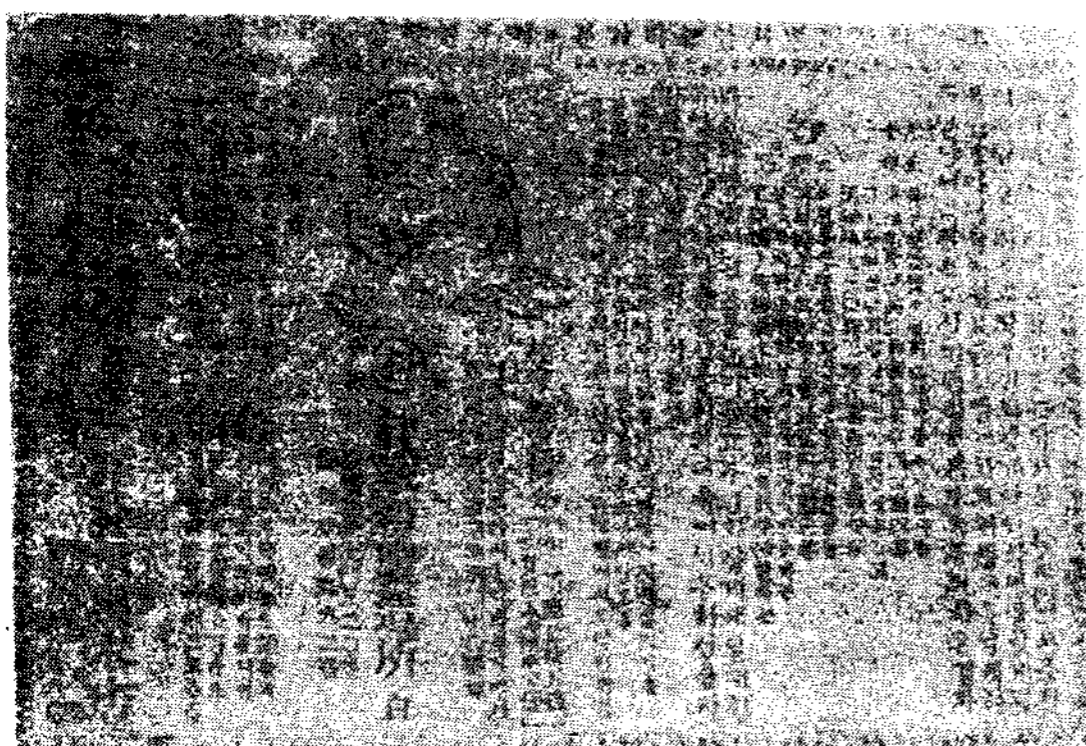


〈圖 17〉 은분갑(銀粉匣)  
은에 칠보장식, 이화(梨花)문양  
(조선, 태평양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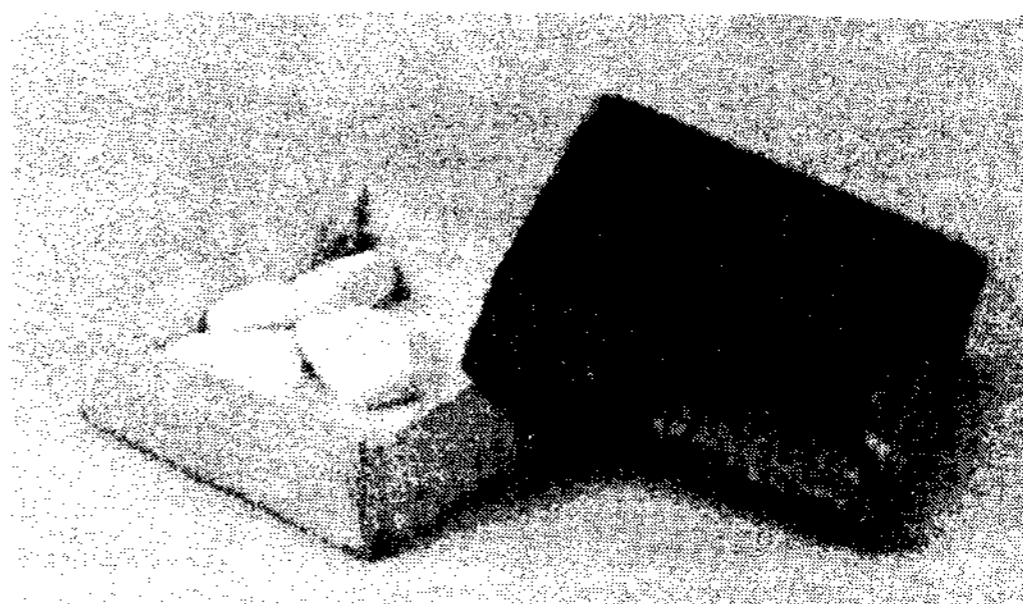
판매하는 분이란 말인데, 이 박씨는 화장품 제조를 본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배우개 바닥에서 布木

22) 동아일보 〈모범적 화장법〉; 「구라부」백분의 신문광고, 1922~23年代

大商人 朴承稷公의 집粉이었다.<sup>23)</sup> 그런데 이 박가분은 오늘날에 형태조차 알 수 없는 재래(張分)을 닮은 것으로서 품질과 포장을 개선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분의 형상은 조금 길쭉한 長方形으로 두께는 2미리 가량이 두줄로 붙고, 그것을 백지로 접어 싸는 것이었다. 박가분은 長方形을 正方形으로 만들어서 “뽕오루” 상자에 두칭으로 넣어 팔았다. 이때는 시대를 따라 일반부녀자들이 분을 바르기 시작했고, 一方에는 일요화장품이 우리나라에 나오기 시작하던 때 였다.<sup>24)</sup> 박가분은 그 원료로 보아 가장 고대적인 것이니 소위 <분쇠>라 하여 鉛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덩어리 분은 바를 때 물에 개어서 손바닥으로 바르는 것이니 분이 얼굴에 잘 으르기는 天下第一品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有害性이라 하여 나라에 따라서는 법령으로 금지까지 되었던 것이다.<sup>25)</sup>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서나 어떤 상품이 인기를 얻으면 모조·유사품이 나오고, 악평을 얻으면 대체품이 나오게 마련이다. 박가분의 경우는 인기와 악평을 동시에 집중시켰었는데, 품질이 개선된 제품을 개발한다면 박가분보다 몇배 치부하리란 기대에서인지 유사품의 출현과 연구개발이 촉진되었다. 그러나 박가분이 근대 화장품 발달사에 유형무형으로 커다란 공로를 남겼다고 말해도 좋으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화장사에 가장 뚜렷하게 기록될 기념비적 존재라 할 수 있다.<圖 18, 圖 19>



<圖 18> 박가분(朴家粉)  
(近代, 1.6×4.8×4.7cm, 피어리스아미박물관)



<圖 19> 박가분(朴家粉)  
우리나라 관허(官許) 1호 화장품  
(태평양박물관)

### ⑤ 크림(美容油)

피부에 부드러움을 주기 위해 대머리 기름을(豚油) 사용했으나, 크린싱크림, 영양크림, 콜드크림과 흡사한 크림을 사용한 예를 찾기는 어렵다. 다만 팔 또는 녹두를 더운 물에 비빈 거품으로 씻었으며 꿀찌꺼기(蜜臘)를 밀화장에 사용했고, 또 이를 얼굴에 골고루 펴 발랐다가 떼어 내기도 했다. 계란(노른자)과 살구씨를 으깨어 기미를 예방하고 고려시대에도 돼지기름을 피부, 연화 목적으로 사용하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칠납을 기름에 용해시켜 피부연화제로 사용한 것은 확실하나, 제법은 미상이다. 콜드크림은 로마 의사 가렌(A.D. 163~200년경)이 만든 시원해지는 연고상(軟膏狀)에서 비롯되었다.<圖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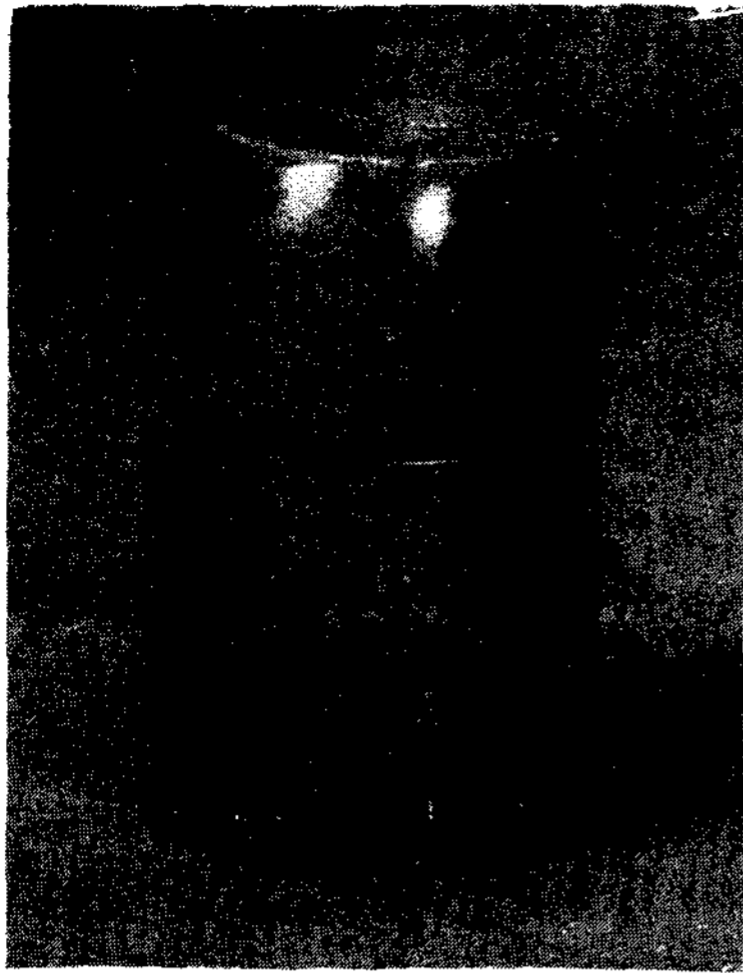
## 2. 傳統 化粧 方法

傳統 化粧 方法에 앞서, 조선시대의 美人像에 대한 표현을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흰 살결, 가늘고 수나비 얇은 듯한 눈썹, 검고 구름을 연상하는 머리, 복상아빛 뺨, 앵도같이 붉은 입술, 가는 허리, 백옥같이 흰 이, 팔등신(八等身), 백모래 발의 금자라처럼 아직거리는 걸음걸이, 옥반에 진주를 두른 듯한 낭랑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최고 美人形으로 되어있지만, 며느리, 아내는 이러한 美人의 기준보다 부모의 일상적인 훈도에 따랐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美人이라는 기준이 달라지기

23) 粧業界, 1960.4 所收 玄傳連, 粧界漫談

24) 粧業界, 1961.1號 所收 玄傳連, 「十年前粧業界와 오늘의 粧業界」

25) 粧業界 1961.1 上同



〈圖 20〉 청자합(靑瓷·)  
화장품(크림)을 담았던 음각청자  
(고려, 지름5.5, 높이7.5, 태평양박물관)

도 했다.

① 분화장(백분)<sup>26)</sup>

분꽃씨, 쌀가루와 서속가루, 조개껍질을 태운 분말, 흰돌가루, 칩을 말린가루 등이 분의 원료이다. 분꽃씨를 절구나 맷돌에 갈아 분말을 만들고 체에 쳐서 만든 백분을 분항아리에 담아 보관하였다가 화장시 적당량을 분접시에 덜고 분수기의 물로 개어 누에고치집에 묻혀 곱게 펴 바른다. 이때 피부 부착력이 좋게 하기 위해서 납과 초를 섞은 것이 연분이다.

② 눈썹화장(蛾眉粧)<sup>2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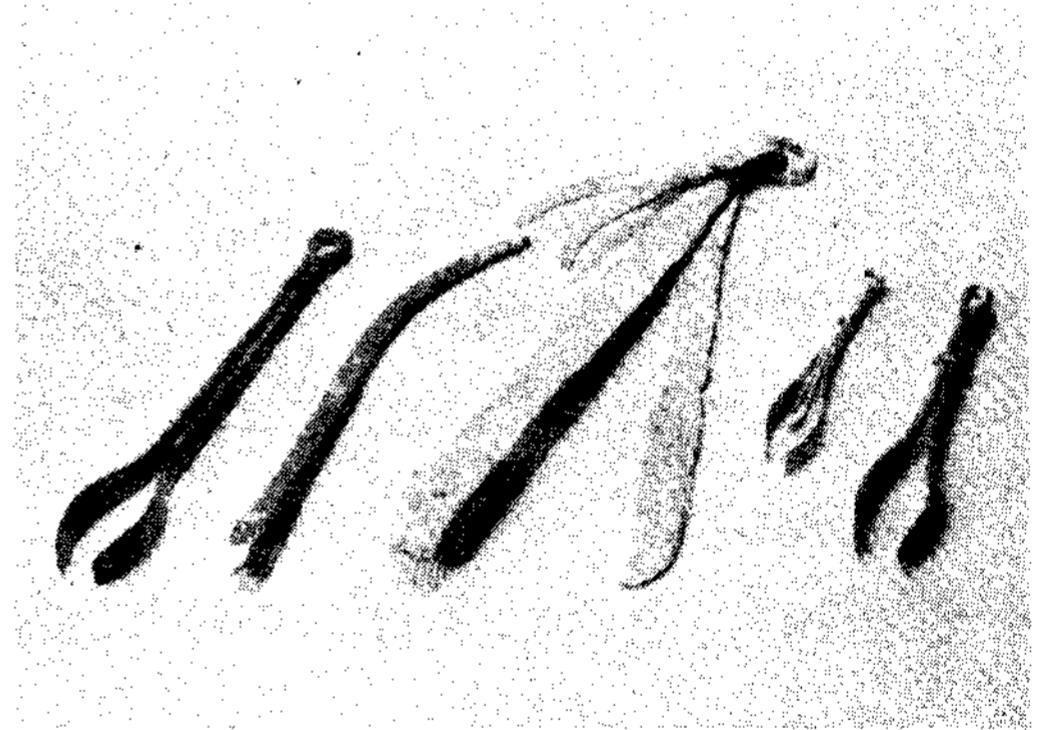
남해안 지방에서 불려진 「해초타령」이라는 민요를 살펴보면,

「~(생략) 고초모 한쪽도 못뽑는 것이 눈썹빼기 만 혈신 늘었다. 누구를 위하여 눈썹을 뽑느냐 서방 느위해서 눈썹을 뽑는다.

〈후렴〉~」

이 민요에서 보이듯이 옛 사람들은 눈썹을 찌르기보다 뽑음으로써 눈썹모양을 수정하였으며, 남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눈썹 모양을 수정하기 위해 뽑는 방법 외에도 미묵(眉墨), 혹은 분(粉)으로 진하게 하거나 흐리게 하였다. 분은 화황(花黃)이

라는 누런 분으로, 부드러움을 주는 효과를 냈다. 미묵이 없을 경우, 굴참나무나 너도밤나무의 목탄을 칠했다. 그런데 이 목탄은 가루가 떨어지는 결점이 있어 관솔에서 나오는 유연(油煙)을 받아 평지씨 기름에 갠 것이 고급품으로 취급되었다. 또는 목화의 자색꽃을 태운 재를 유연에 묻혀 참기름에 이기기도 하고, 보리 감부기를 솔잎 태운 유연에 개어 만들기도 했다. 이러한 미묵 만들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로부터 핀잔받기 일쑤여서 부엌에 흠어진 버드나무 가지 재료로 난몰래 살짝 그리기 예사였다. 미묵 중에서 가장 고급스런 미묵은 송연묵(松煙墨)이었다. 송연묵은 반죽묵이라고도 불렀는데, 달개비의 꽃잎 태운 재를 호마유(胡麻油)로 개고 여기에 유연과 홍·금(紅金) 가루를 기호에 따라 적당량 갠 다음, 눈썹그리는 아황(鴉黃)에 묻혀 눈썹을 그렸다.〈圖 21〉



〈圖 21〉 족집게  
(고려~조선, 태평양박물관)

③ 눈의 입체화장<sup>28)</sup>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황(花黃)을 눈두덩이나 이마에 발라 입체감을 살렸을 뿐, 눈 주위에 색채화장을 하지 않았는데 고대 이집트 여성들은 색채화장을 했다. 고대 이집트 여성들이 사용하던 아이샤도우판을 보면, 색채화장품을 갠 흔적이 뚜렷한데, 그들이 눈주위에 색채화장품을 바른 목적은 아름다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따가운 햇빛으로부터

26) 피어리스 아미박물관자료(한국전래화장품 재료 篇)

27) 全完吉, 化粧風俗史, 月刊藥局, 1985.4, p.177~178

28) 全完吉, 化粧風俗史, 1985.4, p.178

눈을 보호하고 독충(毒虫)으로부터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설이 있다. 더우기 아이샤 도우판 뒤쪽에 주문(呪文)이 새겨져 있다니까 그런 주장이 일리있으리라 여겨지는데, 목적이 무엇이었던 눈 주위에 입체감이 살아, 아름다워 보였던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옛날 여성들이 요즘 여성들처럼 색채화장품으로 눈화장을 하지 않았지만, 미목을 눈썹에 칠함으로써 눈빛이 초롱초롱해 보이는 효과를 얻어 마스크라를 사용한 셈이다.

#### ④ 입술(연지)<sup>29)</sup>

입술이나 볼은 젊고 건강한 상태에서 붉은 색소를 나타낸다. 그리하여 복숭아 꽃잎빛깔을 나타내려고 사용한 화장품이 바로 연지다. 미인의 아름다운 입술은 단순(丹脣) 혹은 「앵도같은 입술」이라고 말하며, 영웅호걸의 입술은 「주사(朱砂)를 찍은 듯 붉다」고 말하는데 이와 같은 입술은 남녀가 가장 젊고 건강할 때의 자연스런 색깔이기 때문이다. 입술 연지 바르는 방법으로, 위·아래 입술 전체에다 바르지 않고, 입술 끝에만 빨갛게 찍어 멀리서 보면 흡사 구슬을 머금고 있는 것 같다는 표현이 있다.<sup>30)</sup> 즉 아름다움의 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연지를 볼에 발랐을 때는 앵두 빛이고, 뺨에 발랐을 때는 복숭아 빛으로 나타난다. 조선시대의 여성들은 이 연지를 양볼과 입술 외에 혼례식 때는 신부의 이마에 찍기도 했다. 그런데 신부의 이마에 찍는 연지·곤지의 그 역사는 오랜 것으로 「규합총서」에는 “송(宋)의 수양공주가 함정전 난간에 누웠다가 매화(梅花)가 날아와 이마에 떨어졌는데, 마침내 이마에 단사(丹砂)를 찍는 단장(丹狀)을 만들고 이름지어 매화장(梅花狀)이라 하여 이로부터 곤지 찍는 법이 생겼다<sup>31)</sup>고 되어 있다. 연지는 비단 얼굴의 표면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거칠어진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데도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홍노의 선우왕이 그 아내의 이름을 연지(關氏)라하고, 연지는 연지(燕支)와 음이 같으니 그 아내를 연지처럼 사랑한다는 의미 외에도 연지(胭脂)의 기름으로써 부인의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

는 까닭이다.”라고 한 「성호사설」 「연지조(胭脂條)의 기록이 증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추운지방의 여성일수록 추위로부터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이 발랐음은 물론이다.

#### ⑤ 화장유<sup>32)</sup>

머리기름(정발유) 중 동백기름은 접착성이 강하고 윤택하며 쉽게 건조하지 않아서 애용되었다. 아주까리씨, 수유씨, 목화씨, 살구씨, 순무씨, 배추씨, 붉은 차조기씨, 기름과 호도의 푸른 껍질 등은 검고 윤택한 머리를 위하여 사용되었고 5월 단오에는 창포 삶은 물에 세발함을 남녀 모두 즐겼다.

#### ⑥ 향료

향유는 장미나 난 등 향기 질은 식물의 화즙을 채취하여 기름에 개어두고 사용하고 마린 향나무 분말을 보관했다가 조금씩 뿌렸다.

#### ⑦ 화장수(미용수)

박줄기즙, 수세미 삶은 즙, 오이즙, 수박즙, 유자즙, 토마토즙, 창포즙, 박하즙, 당귀즙, 홍화꽃분말, 복숭아꽃물, 복숭아잎즙 등은 얼굴빛을 곱고 윤택하게 하는데 사용했다. 또 계란과 살구씨 분말 섞은 것, 꿀과 마늘 섞은 것, 밀납을 기름에 용해한 것, 동물지방 등은 얼굴을 희게하거나 동상을 예방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크림류로 쓰였다.

#### ⑧ 비누

팥, 녹두, 콩을 가루로 만들거나 쌀겨를 쓰기도 하고 창포나 콩깍지 삶은 물로 세안하고 창포당, 쑥당, 난탕에서 목욕하고, 세탁시에 젖 깃물을 사용했다.

#### ⑨ 손톱화장

복숭아 꽃잎을 절구에 빻아서 손톱에 올려 매어 하룻밤을 재워 물들인다. 이때 매영제로 명반, 소금 등을 사용했다.〈圖 22〉

### Ⅲ. 結 論

① 인간이 화장을 시작한 것은 인간의 역사 즉, 人類의 生存과 동시라고 보며, 아름다움에 대한

29) 全完吉, 化粧風俗史, 1986. 2, p.168

30)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1788~

31) 馮虛閣李氏, 閨閣叢書, 鄭良婉譯, 1975, p.236

32) ⑤~⑨, 피어리스아미박물관 자료(한국전래화장품재료 篇)



〈圖 22〉 손톱다듬기  
(고려, 태평양박물관)

욕망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② 화장품은 檀君神話의 쑥과 마늘이 藥材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美容材料로 活用했다고 추측되며, 오줌으로 손과 얼굴을 씻었으며, 돼지기름을 두껍게 발라 추위를 막았고, 피부를 軟化시키는 크림의 원료로 이용되었다. 즉, 古朝鮮時代의 한국인들은 훌륭한 미용기술과 미용지식을 가졌다고 본다.

③ 4~5천년 전, 原始化粧의 形態는 粧飾인 동시에 신분과 계급을 나타내는 표시수단인 文身으로 추측된다.

④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화장방법은 대체로 백분을 애용하였고, 얇은 화장색조와 더불어 가늘고 굽은, 모양의 눈썹을 그렸다. 머리도 아름답게 꾸미고, 향을 뿌리며 보석장식을 했다.

⑤ 宮女들의 粉黛化粧과 더불어 近代로 들어와 신문이나 잡지 등의 빈번한 외제 화장품 광고는 1922~1923년대 당의 상류층의 美容에 대한 관심이 많았음을 나타낸다.

⑥ 요즘, 화장품 중 특히 립스틱(루즈) 속에 발암 유독이나 색소가 들어있다 하여 그 毒으로 인한 파문을 일으키기도 하는 반면에 本研究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전통적인 化粧品들은 식물성 내지는 동물성의 자연에서 얻어진 재료들이라, 그러한 부작용은 전혀 없었다고 보아진다.

⑦ 앞으로 아직 찾지 못한 개화기 이후의 신문과 잡지 및 기사(노래)·민담·민요·속담 등을 통한 자료와 더불어 아직 발견되지 못한 부분의 化粧史에 관한 더 많은 연구도 시도하고자 한다.

#### 〈參 考 文 獻〉

1. 김동욱, 박물관신문(단국대), 1984년, 韓國服飾史 辨證
2. 檀君神話 〈三國遺事卷一〉
3. 馮虛閣李氏, 閩閣叢書, (1759年~1824年)
4. 三國史記, 金富軾, 辛鎬烈譯解; 東西文化社
5. 李瀾, 星湖僊說(英祖年間, 1730年頃)
6. 李圭順, 五洲衍文長箋散稿, 1788~
7. 趙孝順, 「韓國服飾風俗史研究」, 1988
8. 全完吉, 日刊藥局, 「化粧風俗史」, 1982年, 1月號~「멋 5000년」, 敎文社, 1980年
9. 崔南善, 故南善, 故事通
10. 諸橋轍次著, 大漢和事典, 東京; 大修館書店, 昭和 5 9(1984)
11. 久下司, 化粧, 日本法政大學出版局, 1970
12. 晉書, 四夷傳 韓條
13. 新唐書, 隋書; 支那史料抄, 景仁文化社, 1967. 9.5
14. 宋史, 第三冊, 中華學術院印行  
中華民國對四年一月初版
15. 李圭泰(조선일보)外, 동아일보(1922~23年代)
16. 玄傳運, 粧業界, 1960~1961年, 粧界漫談
17. pamphlet(태평양·피어리스박물관 자료)